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일상생활이 즐거운 일산서구'

2025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하반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5. 11. 26.(수), 15:00~17:00	장 소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2층 무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보고 ○ 2025년 연간 주요사업 및 운영 성과 공유 ○ 2026년 시설 운영 및 진로특성화 사업 추진 방안 논의 ○ 지역사회 협력 및 안건 논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종순 ○ (당연직)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박○○ ○ (당연직)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황○○ ○ (위촉직)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 ○ (위촉직)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재학생 박○○ ○ (위촉직)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오○○ ○ (위촉직) 일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장 이○○ ○ (위촉직)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교장 이○○ ○ (위촉직) (주)미디어플로우 이사 최○○ ○ (위촉직) 代 사과나무의료재단 부장 서○○ 		

회 의 내 용

○ 2025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보고

- ※ 2025년 10월 31일 기준
- ° 2025년 수련관 이용인원 현황
 - 연간 인원목표 대비 124.0% 달성
- ° 2025년 수련관 자체수입예산 수납 현황
 - 수련관 연간 계획 자체수입예산액 대비 104.6% 수납
- ° 2025년 수련관 예산지출 현황
 - 수련관 연간 계획 예산지출 대비 71.0% 지출

○ 2025년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주요사업 및 운영 성과

- 2025 고양 미래 진로박람회
 - 일 자: 2025년 8월 27일
 - 장 소: 고양특례시 백석별관
 - 인 원: 총 17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청소년 2,004명 참여
 - 내 용: 고양시 및 고양교육지원청 공동주최,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주관. 고양시 청소년 미래진로 박람회 운영. 지역 대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 공공기관, 민간사업체와 연계하여 항공·드론·로봇·AI 등 신산업 분야와 제과제빵·플로리스트 등 문화, 창작 등 다양한 분야의 81개 진로 부스 운영

- 청소년 미디어아트교육 '미디어 판타GY'
 - 기 간: 2025년 2월 ~ 11월
 - 장 소: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및 관내
 - 대 상: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재학, 총 6개 미디어 동아리 청소년 81명
 - 내 용: 청소년 대상 미디어아트교육 및 청소년 기획 영상물 제작. 고양진로박람회 총 6편의 청소년 미디어아트작품 상영회 진행. 2025년 청소년활동 안전·인증 우수활동 성평등가족부 장관상(대상) 수상

- 청소년 주도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 '2025 고양 호롱불 나이트워크'
 - 기 간: 2025년 4월 ~ 12월
 - 장 소: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 인 원: 청소년 및 지역주민 유료 참가자 1,000명 및 무료참가자(유아~초등) 300명 포함. 총 1,300명 참여
 - 내 용: 후기청소년 콘텐츠기획단의 지역 욕구조사 및 콘텐츠 발굴활동을 통한 지역건기대회 계획 및 진행. 개발 프로그램의 제안서로 지역사회 기업후원유치(EBS, KINTEX,FCMM, 닥스메디 등) 및 지역 공공기관과의 업무협력. 청소년의 관심과 진로흥미를 반영한 창업콘텐츠를 개발-판매-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청소년의 창업역량 향상과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

- 진로프로젝트공모사업 '청소년인생스타트업'
 - 기 간: 2025년 3월 ~ 12월
 - 장 소: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 대 상: 후기청소년 창업프로젝트 6개 팀
 - 내 용: 청소년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프로젝트 사업.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및 지원금 펀딩, 창업 프로젝트 PT 발표를 통한 프로젝트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 창업교육 및 기업가멘토링, 벤치마킹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시제품 제작 및 판매 후 성과공유회 진행

○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특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안전 논의

- ° 이종순 위원장: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의 진로 특성화 사업과 시설운영, 그리고 수련관과 지역사회 청소년자원의 연계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함.
- ° 이○○ 위원: 올해 진행되었던 청소년 미디어아트교육과 관련해서, 최근 미술 박람회에 가서 보면 디지털 영상을 활용한 작품설명 등을 통해 관람자의 몰입도를 매우 높이는 현장들을 볼 수 있음. 수련관에서 미디어아트교육을 진행한다면 짧은 체험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으로 실제적 기술의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함. 그래서 최신의 영상 기술을 배우고 만든 영상을 작은 한 강의실이라도 실제 상영해 볼 수 있게 된다면, 미디어아트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고 영상작품을 관람을 하기 위해 오는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음.

- 이종순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체험이 아닌 경험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참여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 역량이 함양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이○○ 위원: 프로그램이 또 너무 길면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율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4주 정도의 기간으로 알차게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함. 또 동아리 활동관련 해서도 학교에서 청소년 개개인이 밴드와 같은 활동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시작할지, 함께할 친구를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음. 수련관에서 이런 친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홍보할 수 있고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음.
- 이종순 위원장: 홍보 채널도 더욱 이용자에 가까운 홍보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이번 옥상에서 밴드 공연을 한 경우에도 공연한 밴드 청소년들이 동아리 멤버를 SNS(당*)을 통해 모집을 하였음. 또한 이번 '나이트워크' 행사진행 시에도 SNS(인스*)를 통한 홍보도 진행했는데 5만 뷰 이상 조회수가 나오고 바이럴이 되면서 유료 참가자 인원인 1,000명이 금방 모집 완료되는 경험이 되었음.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고 시작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더욱 필요하다 생각함. 이번 행사에 지역에 KINTEX라던지 여기계신 사과나무의료재단에서도 물품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서○○ 위원: 이번과 같은 교류와 참여의 기회가 좀 더 생기고 평소에도 서로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노출이 되어야 시너지가 생기고 지역사회의 반응도 커질 것이라 생각함. 또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사후에 피드백을 잘 못 받을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평가를 나누고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 위원 : 올해 경찰서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문화체육강좌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었는데, 참여시간대와 장소 등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실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향후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이번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한 '고양 미래 진로박람회'에 부스로 함께 참여했는데, 경찰이란 직업에 대한 소개를 사격 체험을 활용해서 진행하였더니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준비한 입장에서도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되었음.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
- 박○○ 의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올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수익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수익이 물론 시설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됨. 일산 3동에서도 수련관에서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면 노력하겠음. 다음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진로 진학이라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과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함.

◦ 오○○ 위원: 지역주민으로서 평소에 수련관의 행사에 관심이 많고, 이번에 호수공원을 걷는 '호롱불 나이트워크' 행사도 홍보를 보고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되어서 아쉽게 참여를 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 보았을 때 진로 창업이란 사업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런 첫 해의 시도들이 잘 보완되고 발전되어서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함. 반면 한 부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육강좌가 활성화 되는 것이 또 시설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질수록 청소년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 가지 희망하는 의견으로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이 날마다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과 프로그램이 수련관에 좀 더 생겨난다면, 이용자들의 성별과 연령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더하면,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농구를 참 좋아했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음. 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인데, 학교 시간 후에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고 집 주변 마두청소년수련관에 농구장이 있어서 그곳에 동아리로 가입하고 1시간씩 예약해서 사용했었음. 지역에 이런 체육활동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종순 위원장: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에도 클라이밍이나 G.X공간이 있으나 충분치 않고, 강당에서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어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만약 인근에 공공체육시설이 생긴다면 연계해서 청소년, 청년 대상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갈 수 있다고 보임.

◦ 김○○ 위원: 지난 백석동에서 진행된 '고양 미래 진로박람회'에 참석 했었는데,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있어서 너무 놀랍고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의 시설운영위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음. 이에 대한 의견으로 참가자 모집이 학교를 통해 진행되다 보니 개별로 참석하고 싶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을 위한 기회가 없었다는 피드백도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진로박람회 행사 진행시에 학교를 통한 참가자 모집과 더불어 소수라도 개인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 최○○ 위원: 개인적으로 수련관에서 타겟으로 하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고려점을 이야기 하고 싶음. 시설에서는 주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사업을 계획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한 경험으로는 몸은 학교 안에 있고 마음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음. 그래서

아직 학교 안에 있더라도 언제든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들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박○○ 위원: 청소년학을 전공을 하고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실습을 하였기에 기존 수련관이 바뀌기 전의 모습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점차 변화하는 수련관을 보면서 뭔가 여기서 더욱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이번에 바뀐 옥상정원에서 '세바시' 형식의 강연도 가능할 것 같고, 관객과 함께하는 북토크 같은 행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 또 고등학교 때 경험한 진로 동아리 활동도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이 진로특성화를 추진하는 시설에서 하면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그 밖에 나누었던 체육프로그램 관련해서도 학교 수행평가 종목을 연습할 수 있거나, 넓은 공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주제로 계획한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고 진행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함.

◦ 황○○ 위원: 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입장으로서 여기 시설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의견이 많아서 '다 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수련관에 자주 와서 직접 청소년 대상 사업을 만들고 진행해 보니, 쉽지 않음을 느낀다. 먼저 아직 청소년수련관을 잘 모르고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수련관에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에 앞서 이야기된 필요한 홍보방법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인식과 인지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서○○ 위원: 오늘과 같이 회의에서 이야기 되는 좋은 각 시설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저희 병원이나 각 기관에서 함께 협력해서 홍보를 한다면 높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음. 이런 생각들이 다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